

한 사람의 죽음이 무슨 차이를 만드는가?

2022년, 남동생을 잃었다. 그는 69세였다.

한 사람의 죽음이 내 삶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가?

내 죽음이 어떤 의미를 지니길 바라는가?

내 삶의 모든 물리적 흔적이 자연과 하나 되어 구분되지 않기를 바란다. 개미처럼, 혹은 고래처럼. 이름 붙은 기념비도, 기관도, 심지어 유골을 표시하는 자리조차 원치 않는다.

나는 몇몇 사람의 삶 속에 남고 싶다. 웃음의 원천으로, 성찰의 계기로, 어떤 이에게는 희망으로. 무엇보다도 감사하려 노력했고, 사랑으로 진실을 말했고, 사실 너머의 진리를 찾았고, 모든 이웃을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대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높은 기준임을 안다. 그리고 거둬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비결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는 기쁨 속으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다.

15년간의 선교사 생활 — 때로 존경과 칭찬을 받기도 했다 — 이후, 나는 지금 AARP/TaxAide 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해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는 일이다. 전문 세무사와 경쟁할 수는 없지만, 일반 납세자에게는 충분한 훈련을 받는다. 이 만남들의 가치를 나는 갈수록 더 소중히 여기게 된다.

내 앞에 앉는 사람들은 수적으로는 이 사회의 다수이지만, 부와 정치적 권력 면에서는 극소수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직접 경험하기는 드문 다양성이 이들 안에 있다.

이 만남들이 내 삶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풍요롭게 해주었다. 사회가 그들에게 붙인 꼬리표 너머로 그들을 보는 법을 배웠고, 필요를 부분적으로나마 채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환급금과 세액 공제를 복권 당첨처럼 기뻐하는 이들의 기쁨을 함께 느끼는 법을 배우고 있다. 비록 그것이 이자도 없이 돌아오는 자기 돈일 뿐이라는 사실은 차치하고서라도. 하루하루 기본 필요를 채우기도 힘든 상황에서 세금 고지서를 걱정하는 이들의 염려도 함께 짊어지게 되었다.

이제 어떤 일이 이웃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그것이 나에게 미쳤을 영향이 아니라 그들의 관점에서 느끼고 보려 한다. 항상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전보다는 더 자주 그렇게 된다. 그 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소그룹 나눠 자료

이 이야기는 극적인 장면도, 결정적 대사도 없습니다. 박송현 선교사는 80대에, 세금 신고를 도와주는 자원봉사 사무실에 앉아 자신의 삶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묻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답입니다. AARP 세금 봉사는 선교 인생의 부록이 아닙니다. 그것이 선교 인생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 교회 공동체 —

20-35세

도입 (5분)

-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 내 삶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물어오게 한 경험이 있나요? 그 질문은 어떤 느낌이었나요?

본문 나눔 (20분)

1. 박 선교사는 묘비도, 이름 붙은 기관도 원하지 않습니다. 자연 속에 스며들길 원합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나요?
2. 15년간 칭찬받은 선교 사역 이후, 그는 세금 신고 봉사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덜 화려한 일이 더 의미 있을 수 있다면, 어떤 조건에서 가능할까요?
3. “이웃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그것이 나에게 미쳤을 영향이 아니라 그들의 관점에서 느끼려 한다.” 이것이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4. 그는 자신이 세운 기준에 “거듭해서 미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솔직함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나요?

성경 연결 (10분)

미가 6:8 —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 박 선교사의 목록 — 감사, 진실, 동등한 시선 — 은 미가의 세 가지와 겹칩니다. 미가가 말하는 “선한 것”과, 우리 문화가 말하는 “성공”은 어떻게 다른가요?

삶에 적용 (5분)

- 업적이 아닌 한 가지 방식 — ‘내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 를 생각해보세요. 그것을 연습할 수 있는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자리가 이번 주에 있나요?

36-60세

도입 (5분)

- 인정받고 칭찬받던 자리에서 물러나 더 조용한 자리로 이동한 적이 있나요? 그 이동이 어떠했나요?

본문 나눔 (20분)

5. 박 선교사는 남동생의 죽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내 삶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물어오게 한 적이 있나요? 그 질문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바꾸었나요?
6. AARP 고객들은 “수적으로는 다수, 부와 권력으로는 극소수”라고 합니다. 내 주변에서 이 설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나는 그들과 실제로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7. 환급금을 복권 당첨처럼 기뻐하는 이들의 기쁨을 “함께 느끼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기준에서 그들의 기쁨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 실제로 어떤 것일까요?
8. “포기하지 않는다.” 스스로 세운 기준에 계속 미치지 못하면서도 돌아오는 것 — 여러분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성경 연결 (10분)

누가복음 14:12-14 —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처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네게 보답할 수 없는 고로 네가 복이 있으리니”

- 예수님은 돌아오는 것이 없는 환대를 설명합니다. 박 선교사의 세금 봉사도 같은 모양입니다. 이 본문이 “의미 있는 일”의 기준을 어떻게 바꾸나요?

삶에 적용 (5분)

- 박 선교사의 두 질문을 내 버전으로 써보세요: 내 죽음이 어떤 의미이길 바라는가? 지금 나의 삶은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60세 이상

도입 (5분)

- 이 나이에 이르러, 실제로 중요한 것에 대해 가장 놀라웠던 것은 무엇인가요? 중요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은? 예상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본문 나눔 (20분)

9. 박 선교사는 80대에, 세금 신고를 도우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삶이 풍요로워졌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경험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10. 묘비도, 기관도, 표지판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감사하고, 진실하고, 공정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작은 소망인가요, 큰 소망인가요?
11. 그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 “이전보다 더 자주,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 나이에 아직도 배우고 있다는 것 — 위안이 되나요, 아니면 불편한가요?
12. “사회가 우리에게 붙인 꼬리표 너머로.” 살아오면서 사회가 여러분에게 붙인 꼬리표는 무엇이었나요? 무엇이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었나요?

성경 연결 (10분)

빌립보서 4:11-12 —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 바울은 만족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젊을 때는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긴 시간 속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삶에 적용 (5분)

- 한 문장으로 말하거나 써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는가? 무엇을 이루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지로.

20-35세

시작하기 (5분)

-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나요? 업적이 아니라, 함께 있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나눔 (20분)

- 박 선교사는 묘비나 기관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연 속에 스며들길 원합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나요?
- 15년 선교 사역 후 세금 봉사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왜 눈에 띄지 않는 일이 칭찬받는 일보다 더 의미 있을 수 있을까요?
-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직접 경험하기는 드문 다양성.” 내 삶에서 이것이 사실인가요? 범주나 통계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 그는 이웃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자신에게 미쳤을 영향이 아니라 그들의 관점에서 느끼려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더 깊이 (10분)

- 우리가 칭찬하는 사람들과, 실제로 사회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박 선교사는 전자의 삶을 살다 후자를 향해 이동했습니다. 그 이동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 걸음 (5분)

- 세상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실제로 아는 사람 한 명을 떠올려보세요. 그를 알게 된 것이 내게 무엇을 주었나요?

36-60세

시작하기 (5분)

-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 내 삶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게 한 적이 있나요? 무엇이 달라졌나요?

나눔 (20분)

- 박 선교사는 남동생의 죽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타인의 죽음이 왜 내 삶의 의미를 묻게 만드나요?
- 그의 고객들은 “수적으로 다수, 권력으로는 극소수”입니다. 내 주변에서 이 설명에 맞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나는 그들과 실제로 앉아 있나요?
- 환급금을 복권처럼 기뻐하는 이들의 기쁨에 “함께 들어가는 것” — 그들의 기준에서, 내 기준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해준 적이 있나요? 어떤 느낌이었나요?
- “높은 기준임을 안다. 거듭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충분한 대답이라고 생각하나요?

더 깊이 (10분)

- 이민자와 다문화 공동체 구성원들은 종종 이 이야기의 양면을 압니다 — 모든 것을 바쳐 여기까지 온 사람들과, 이미 여기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들. 내 주변에서 수적으로는 다수이지만 권력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한 걸음 (5분)

-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것을 한 문장으로 말해주세요.

60세 이상

시작하기 (5분)

- 돌아볼 때, 중요하다는 생각이 가장 크게 바뀐 때는 언제였나요? 무엇이 그것을 바꾸었나요?

나눔 (20분)

21. 박 선교사는 80대에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돌아옵니다. 신실한 노년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2.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삶이 풍요로워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디서, 어떻게였나요?
23. “꼬리표 너머로.” 살아오면서 사회가 여러분에게 붙인 꼬리표는 무엇이었나요? 그것을 넘어 본 적이 있나요?
24. 그는 감사로 끝냅니다. 확신이 아닌, 여전히 자라고 있는 감사로. 이것으로 충분한가요?

한 걸음 (5분)

- 이 이야기에서 — 혹은 이 시리즈 전체에서 — 가장 마음에 남는 것을 나눠주세요.

— 이민자·다문화 공동체 (전 연령) —

이 이야기는 모든 이민자 공동체가 아는 질문으로 답합니다: 수적으로 다수이면서 권력으로는 극소수인 것은 어떤 것인가?

시작하기 (5분)

- 남기고 싶은 것을 생각할 때 — 물건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으로 — 무엇이 떠오르나요?

나눔 (20분)

25. 박 선교사의 AARP 고객들 — “수적으로는 다수, 부와 권력으로는 극소수” — 이 설명이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느껴지나요? 여러분 자신이 이 설명 안에 있다고 느끼나요?
26. “사회가 그들에게 붙인 꼬리표 너머로 그들을 보는 법을 배웠다.” 이 사회가 여러분의 공동체에 붙인 꼬리표는 무엇인가요?
27. 환급금을 복권처럼 기뻐하는 이들의 기쁨에 들어가는 것 — 내 기준이 아닌 그들의 기준에서. 누군가 나에게 그런 방식으로 들어와 준 적이 있나요?
28. 15년 선교 사역 후 세금 봉사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보이지 않는 일,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 일이 더 중요했던 경험이 있나요?

더 깊이 (10분)

- 출신 나라에서 오신 분들께: 물건이나 업적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으로 이름 없이 남길 유산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이곳에서 자란 분들께: 이민자 공동체와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기쁨에 대해, 염려에 대해, 중요한 것에 대해 당신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나요?

한 걸음 (5분)

- 이 문장을 소리 내어 또는 글로 완성해보세요: “나는 _____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인도자 가이드

저자의 말

“남동생이 죽었습니다. 69세였습니다. 계속 물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무슨 차이를 만드는가?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 죽음은 어떤 차이를 만들길 바라는가? 대답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콩고에서의 15년이 아니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세금 사무소였습니다. 환급금을 받고 울었던 그 여성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진짜 다루는 것

이 이야기는 시리즈의 마지막이며, 다른 이야기들과 구조가 다릅니다. 이국적인 장소의 극적 장면이 없습니다. 배경은 미국의 자원봉사 세금 사무소입니다. 그리고 박 선교사는 지도하는 선생이 아니라 앞자리에서 사역하는 실무자입니다.

이야기의 두 움직임

- 1부 — 남동생의 죽음: 내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길 바라는가?
→ 기념비가 아닌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
- 2부 — 세금 봉사: 이것은 부록이 아닙니다.
→ 1부의 답이 화요일 아침에 살아있는 현장입니다

이 이야기의 놀라움은 역전입니다. 15년의 선교 사역은 존경을 얻었습니다. 세금 봉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2부가 그가 가장 살아있고, 가장 배우고 있고, 가장 솔직한 곳입니다.

모임 시작 방법

- ✓ 모든 모임 공통: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 내 삶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묻게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결론을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그 질문이 어떤 느낌이었는지만.”
- ✓ 죽음이라는 주제가 불편한 그룹을 위한 대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세 단어로 묘사한다면 — 업적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신가요?”
- ✓ 시리즈 마지막 모임이라면: 어떤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지로 시작하세요.

주의할 세 가지 위험

- △ 위험 1: 선교 사역이 핵심이 되고 세금 봉사는 따듯한 에필로그가 되는 경우

어떻게 보이는가: 논의가 선교 15년에 무게를 두고, AARP 봉사를 은퇴 후의 훈훈한 마무리로 취급합니다.

왜 중요한가: 박 선교사님은 명시적으로 이것을 역전시킵니다. 그는 세금 봉사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전환 질문: “왜 세금 봉사를 더 소중히 여길까요? 15년의 선교 사역이 주지 못한 것을 세금 봉사가 주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 위험 2: 유산 성찰이 자기 위로 연습이 되는 경우

어떻게 보이는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이 아름다운 말들을 끌어내지만, “거듭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핵심 고백이 빠집니다.

왜 중요한가: 고백이 이 이야기의 심장입니다. 그는 도달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 돌아온다고 합니다.

전환 질문: “거듭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세운 기준에 계속 실패하면서도 계속 돌아오는 영역이 있으신가요?”

△ 위험 3: 다양성 통찰이 추상적으로 머무는 경우

어떻게 보이는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개인적으로 경험하기 드문 다양성”이라는 말이 일반적인 문화 관찰로 긍정되지만, 구체적인 한 사람을 명명하지 않습니다.

전환 질문: “범주나 통계가 아니라, 구체적인 한 사람 — 여러분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잘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가까이 갔을 때 그 사람의 구체적인 기쁨이나 염려가 느껴진 경험이 있나요?”

그룹별 접근

한국·재외동포 모임: 직접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수적으로는 다수이지만 권력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은 그들과 함께 앉아 있나요?”

슬픔을 가진 그룹: 이 이야기는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상실이 최근이거나 현재의 그룹에서는, 이 이야기가 예상보다 더 많은 것을 열 수 있습니다. 그 공간을 허용하세요.

은퇴 전후 그룹: 박 선교사는 업적이 아닌 만남으로 조직된 사역 이후의 삶을 보여줍니다. 세금 봉사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신실하고, 매주 반복되며, 현존합니다.

청년 그룹: 가시성과 영향력을 의미의 척도로 삼는 세대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도전적인 메시지입니다.

마무리

- ✓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는가? 무엇을 이루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지로.” — 이 질문으로 닫습니다.
- ✓ 시리즈 전체를 함께 읽은 그룹이라면: “어떤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나요?”로 마무리해도 좋습니다.

저자의 성찰 질문들: 1. 왜 화려하지 않은 일이 칭찬받는 일보다 더 실제처럼 느껴지는가? 2. 자신의 기준에 계속 미치지 못하면서도 계속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3. 세금 고지서를 낼 수 없는 누군가의 염려를 함께 짊어질 때 — 나는 실제로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관찰하고 있는가? 4. 내가 떠난 뒤 누군가가 나에게 대해 말하길 바라는 것 — 지금 나는 그것을 살고 있는가?

